

Banglatti

+ Special Edition

베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2014 MAY

May Report

김진경
황하람
신지효
오혜정

BIRISIRI YMCA, BANGLADESH

RAONATTI 11th Batch



1. 일정 소개

2014 MAY

BAJALGADESH

RAONATTI 11th Batch



I . 일정 소개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홈스테이 시작	2 ·YMCA Youth 세미나	3 ·ART CLUB ·공교육파견 준비
4 ·현지교회 (특송) ·MOVIE CLUB ·공교육파견 준비	5 ·다하파라 NFPE&Clinic ·공교육파견 준비	6 ·다하파라 NFPE ·MUSIC CLUB ·공교육파견 준비	7 ·공교육파견 ·쓰레기통 페인팅	8 ·다하파라 NFPE&Clinic	9 ·교회 Youth 세미나	10 ·ART CLUB ·공교육파견 준비
11 ·현지교회 ·공교육파견 ·MOVIE CLUB	12 ·다하파라 NFPE&Clinic ·쓰레기통 전달식	13 holiday ·MUSIC CLUB (환영식 준비)	14 ·중간평가 준비	15 중간평가 ·환영식 ·비리시리 Y 프리젠테이션	16 중간평가 ·다하파라 NFPE ·홈스테이 방문 ·프리젠테이션	17 중간평가 ·개인면담 ·ART CLUB
18 ·현지교회 ·Cultural Interaction Day (Youth음식교류)	19 ·다하파라 NFPE&Clinic ·Youth 미팅	20 ·YMCA Youth 피크닉	21 ·이슬람커뮤니티 방문 ·시장위원회 미팅	22 ·다하파라 NFPE&Clinic	23 ·시장 클리닝	24 ·ART CLUB (갤러리 준비)
25 ·현지교회 ·MOVIE CLUB	26 ·다하파라 NFPE&Clinic	27 ·다하파라 NFPE ·MUSIC CLUB	28 ·시장 클리닝 ·갤러리 준비 ·5월보고 준비	29 ·다하파라 NFPE&Clinic	30 ·시장에 갤러리설치 및 모금활동	31 ·ART CLUB



II. 활동정리

2014 MAY



1. 다하파라 NFPE & CLINIC
2. 비리시리 YOUTH & LOCAL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2) 다하파라 클리닉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과목	진행상황
영어 (월, 김진경)	Class 1 : 알파벳 숙지 및 기본회화 인사, 알파벳 순서별 단어(예 A=Apple) Class 2: 교과서 기본 회화 및 색깔, 동물, 과일, 신체부위 이름 단어 수업
수학 (화, 황하람)	Class 1 : 지속적으로 1부터 100까지 숫자에 익숙해지기 위한 수업진행 Class 2 : 어느 정도 숫자에 익숙해졌으므로 간단한 사칙연산 수업진행
미술 (목, 신지혜)	종이 접기로 연필꽃이와 모빌 만들기, 클레이로 연필악세서리 만들기 등 아이들이 다양한 교구를 사용해봄과 동시에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수업 진행
음악 (화, 오효정)	'나비야' 가사를 방글라로 번역해 율동과 함께 부르기, 야외로 나가 나비가 되어 노래를 불러보기 등 신체활동과 병행한 음악수업 진행 중
영어애니메이션 (월, 오효정)	Class 2 도라, class 1 코코몽 시청 후 단어와 표현 익히기. 영어수업과도 연관 지어 색깔이나 기본적인 영어표현 복습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천장 보수 및 아동 화장실 공사 완료

진주 YMCA의 자금 지원으로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되었던 학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천장이 깨끗이 올려졌고, 아동용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되어 Youth들과 함께 페인트칠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화장실은 다 지어졌지만, 아이들은 아직 야외에서 볼일을 보는 것에 익숙하기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교육은 다하파라 Doctor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실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한 뒤 손을 씻는 과정까지를 가상으로 연습해보았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습관처럼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줄 예정이다.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더욱 청결하고 보건문제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1. 다하파라

(2) 다하파라 클리닉

다하파라 클리닉 활동인 서베이와 맵핑도 4월에 이어 계속 해서 진행 중이다. 서베이는 50%정도 진행되었고, 다하파라 마을지도도 5월 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서베이가 마무리되면 소똥 구멍 만들기 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 또한 다하파라 지역의 보건이슈를 파악하여 관련 캠페인 또한 펼칠 계획이다.

(43p. 활동고민 참조)





2. 비리시리

(1) Youth

- Youth Club
- 피크닉
- 세미나

(2) 로컬 커뮤니티

- 홈스테이
- 공교육 파견
- 이슬람커뮤니티 방문
- 결혼식
- 교회 특송

(3) 중간평가

2. 비리시리

(1) Youth

① Youth Club

Youth 클럽이 슬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Art클럽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보는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5월 30일에는 지금까지 Youth 멤버들과 함께 만들었던 클레이 연필장식, 과자봉지로 만든 나비들을 시장에서 팔아 모금을 하였고, 모인 기금은 4월 Pohela Boishakh 기간에 모았던 기금과 합하여 6월 환경의 날에 나무모종을 심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보고서에 실을 예정)

Music클럽에서는 다같이 합창 연습을 하여 Youth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합창을 할 계획이다. Youth클럽의 가장 큰 고민은 앞선 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라온아띠 팀이 빠지더라도 클럽활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굳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Music클럽, Art클럽, Movie클럽이 아니더라도 Youth들이 주제적으로 활동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어나가야겠다.



2. 비리시리

(1) Youth

① Youth Club

5월 18일, 한국-방글라데시 Cultural Interaction Day의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본 뒤 서로의 요리를 만들어 나눠먹었는데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남녀 할 것 없이 요리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뒷마무리를 하는 등 Youth멤버들 모두가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Youth멤버들은 가로 만티와 빠피솥따를 만들었고 라온아띠 팀은 비빔국수와 짜장국수를 만들었는데,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 너무나 맛있게 잘 먹어 모두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었다. 준비한 음식이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작과 동시에 전기가 나가버려 칠팝 같은 어둠 속에서 음식을 먹는 등의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러나 함께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기에, 우리 모두 다음 Cultural Interaction Day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2. 비리시리

(1) Youth

② 피크닉

5월에는 YMCA Youth 포럼 친구들이 피크닉을 기획하였다. Youth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던 사전 미팅부터 우리도 함께하면서 피크닉 장소와 날짜, 참가비, 점심메뉴 등을 결정하였다.

5월 20일, 피크닉 목적지인 SAGOLDIGI에 도착하자마자 한 켠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방글라데시의 게임이 진행되었다. 퀴즈를 맞춘 사람이 눈을 가린 뒤, 여자 얼굴이 그려진 칠판에 톱(Tip/여성의 미간에 붙이는 액세서리)을 그리는 게임이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속에서 서로 깔깔거리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피크닉 장소에서 가까운 Youth멤버의 집에도 방문해 차와 과자를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내 집처럼 편하게 방문하고 머무는 이곳의 문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했다. 시간이나 일정에 쫓기지 않은 채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직접 점심을 만들어 먹는 피크닉은 우리가 즐겨왔던 피크닉과는 사뭇 다른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2. 비리시리

(1) Youth

③ 세미나

5월에는 YMCA에서 한번, 라온아피와 많은 Youth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한번 총 두 번의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5월 2일 - YMCA 세미나, 5월 9일 - Baptist Church 세미나)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Youth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은 그들의 평소 모습과 사뭇 달랐고 우리가 생각했던 Youth멤버들이 만나 싶을 정도였다. 너 나 할 것 없이 열정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Youth멤버들을 보면서 이슈와 쟁점만 있다면 Youth들이 토론을 통해 충분히 본인들의 생각을 개진하고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비리시리에도, 방글라데시에도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을 Youth들이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이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세미나가 하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하여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2. 비리시리

(1) Youth

- Youth Club
- 피크닉
- 세미나

(2) 로컬 커뮤니티

- 홈스테이
- 공교육 파견
- 이슬람커뮤니티 방문
- 결혼식
- 교회 특송

(3) 중간평가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① 홈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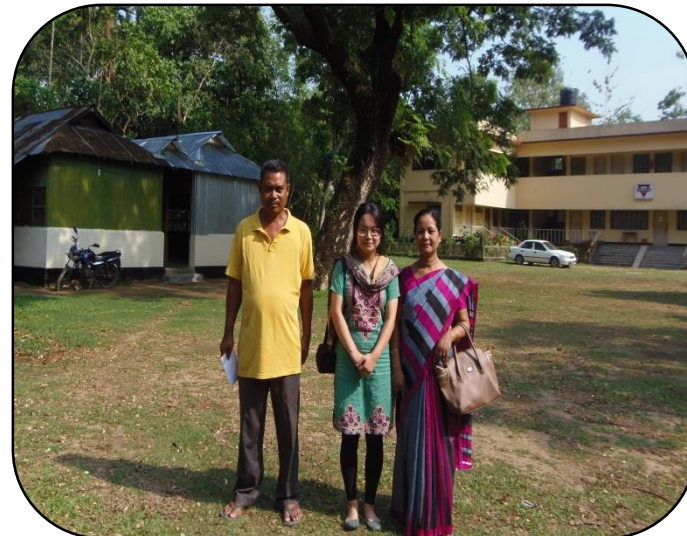
5월 1일부터 우리는 각자 성을 받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Ajoy Sangma(진경 단원), Shojol D Sangma(하람 단원), Dipa Rema(지혜 단원), Shiuly Rangsa(효정 단원). YMCA에서 함께 생활하던 3, 4월과는 달리 이제는 각자의 집과 가족이 생겨 더욱 리얼한 방글라데시, 더욱 리얼한 가로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5월 한 달을 지내면서 가족들이 하는 집안일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시장에 있는 요리 교실에 나가기도 하며,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등 가족구성원의 일원이 되고 있다. 또한 서로의 집에 초대받아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고 예정 없이 종종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치 자기 자식처럼, 조카처럼 대해주시는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느끼고 있다. Ajoy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호스트 패밀리를 맡게 된 가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로족의 끈끈한 가족유대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① 홈스테이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② 공교육 파견 (7일, 11일)

우리 팀이 350ppm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결정한 공교육 파견활동을 두 차례 진행했다. 수업대본 방글라 번역부터 다양한 교구까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덕분에 꽤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지구 온난화와 일상에서 실천하는 350ppm 캠페인에 대한 내용으로, Ideal High School의 8학년, 9학년, 10학년과 함께 진행되었다

(구체적 수업내용 - 4월 보고서 참조)

우리의 부족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북극곰 체험, 스티커 붙이기, 서약서 쓰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었고, 함께 간 Youth들의 도움도 무척 컸다. 5월 중순부터 방학에 접어드는 바람에 곧바로 이어서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6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학교에 파견되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다.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② 공교육 파견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쓰리나, class 9

“방글라데시는 환경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다.”

-올론포, class 10



2. 비리시리

2014 MAY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ADESH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③ 이슬람커뮤니티 방문 (21일)

지난 4월 힌두커뮤니티 방문에 이어, 5월은 이슬람커뮤니티 방문을 하고 싶다고 비리시리 YMCA 총장님께 요청을 드렸다. 우리의 일정이 없는 날을 이용해 Youth들과 함께 이슬람커뮤니티의 한 가정을 방문했다. 지난 4월 힌두커뮤니티 방문 이후 가졌던 팀 나눔과 총장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이번 방문에는 결혼과 남녀평등에 관한 더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특별히 여성문제가 나타나는 가정을 찾아 방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생각이 우리와 많이 다르지는 않았다. 이에 덧붙여 이슬람이 가지는 종교적 관습이나 장례절차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④ 결혼식 방문

처음으로 비리시리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여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지만 이후 신부의 집으로 돌아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 잔치를 하였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결혼식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방글라데시의 결혼풍습을 배울 수 있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잔치의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면 축하객들이 와서 선물을 전달하고 이들의 입에 Payesh(밥, 우유, 설탕, 건포도, 약간의 소금을 넣고 만든 음식)를 한입씩 떠 먹여주는 풍습도 있었다. 보편적으로 전통의상인 반자비와 사리를 입고 결혼식을 하지만 최근에는 서양식 결혼식처럼 웨딩드레스에 턱시도를 입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식사를 하러 방문한 잔치에서 Shojol(하람 단원)과 Dipa(지혜 단원)는 신부의 팔과 손등에 새겨진 Mehedi(헤나의 일종) 문양을 본인들의 팔에 따라 새겨보기도 하고, 신랑 신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도 찍는 등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⑤ 교회특송

재미있게도 이번 기수의 방글라데시 팀 전원은 크리스천이어서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다. 가로족의 99.9%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로컬커뮤니티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을 해나가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지 않겠냐는 Shojol(하람 단원)의 Host father(Baptist Church의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는데, 비리시리에 온 이후로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를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생겼다. 7월 첫 주에는 우리가 현재 Music Club에서 준비하고 있는 Youth멤버들과의 합창으로 한 번 더 교회에서 Youth들과 함께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





2. 비리시리

(1) Youth

- Youth Club
- 피크닉
- 세미나

(2) 로컬 커뮤니티

- 홈스테이
- 공교육 파견
- 이슬람커뮤니티 방문
- 결혼식
- 교회 특송

(3) 중간평가

2. 비리시리

(3) 중간평가 (15~18일)

* 준비하기

어느덧 방글라데시에서의 삶도 반쯤 흘렀고 중간평가가 다가왔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며 진행했던 팀 나눔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체적인 점검도 이루어졌다. 우리가 가진 강점과 단점, 고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활동의 방향도 다시금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뚜렷이 목표로 하는 것들은 '지속성', '연관성', '현지사람들의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지, 우리가 펼치는 활동이 거미줄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있는지, 또 이 모든 것들이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방향이자 강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Youth활동, 로컬 활동과 관련해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정리해보았다. 이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이나 면담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 팀이 남은 시간 동안 더 유익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2. 비리시리

(3) 중간평가 (15~18일)

* 즐기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중간평가가 시작되었다. 비리시리Y 총장님의 비리시리YMCA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우리와 Youth가 함께 준비한 Cultural Program도 진행했다. Music Club을 통해 열심히 준비한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끼 많은 Youth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을 즐겼다. 다함께 저녁을 먹고 KB 김병재 차장님, 연맹 정동민 간사님과 함께 팀별 면담시간도 가졌다. 우리가 가진 고민들과 방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다함께 다하파라로 출발하여 우리의 NFPE 수업모습과 다하파라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리시리로 돌아온 후에는 우리의 집들을 방문하며 우리가 현지사람들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행복하게 잘살고 있는 모습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었다. 현지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진 PPT와 개인 소감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봤고, 마지막날에는 개인면담을 통해 각자가 지니고 있던 생각과 고민, 느낌들을 나누면서 정리할 수 있었다.



2. 비리시리

(3) 중간평가

*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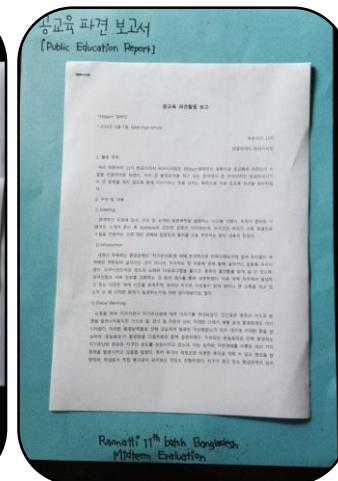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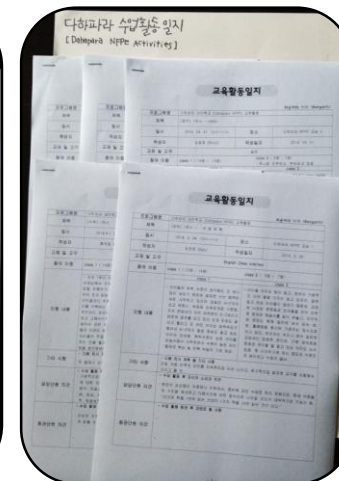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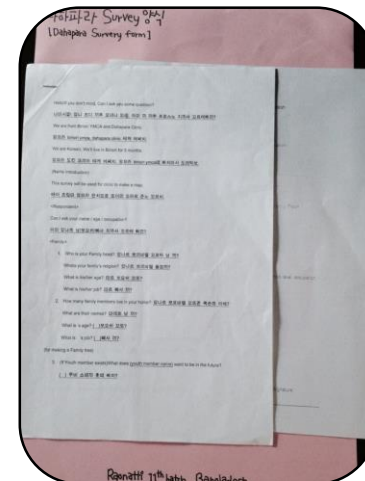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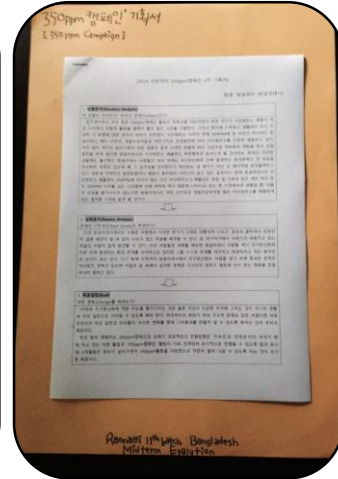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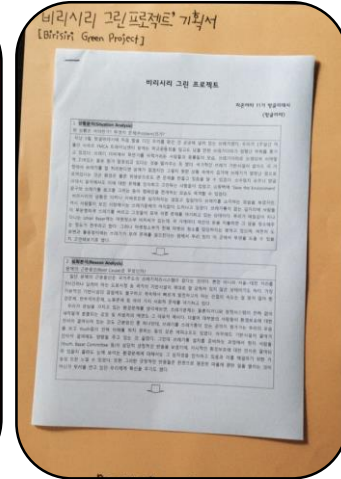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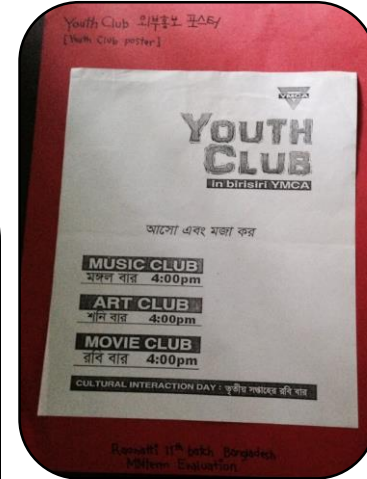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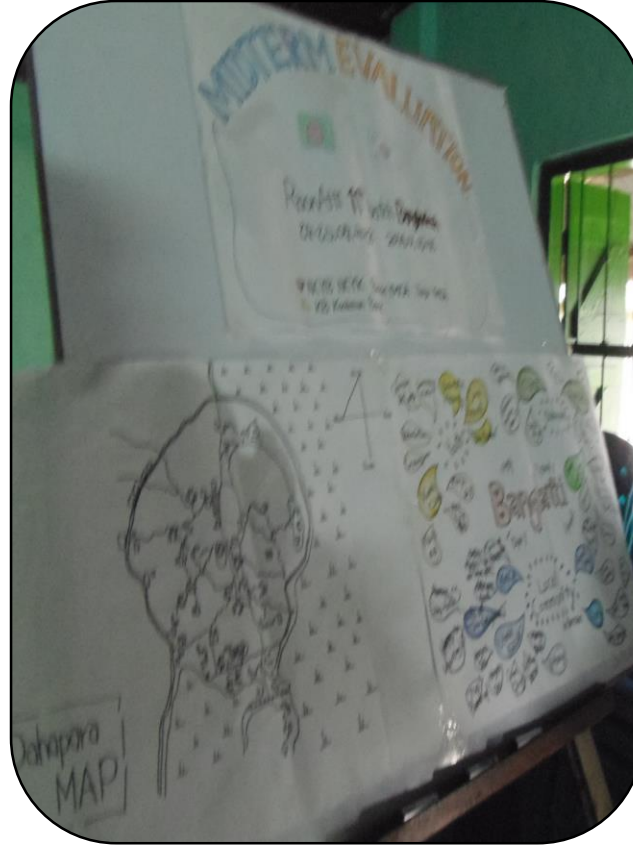


2. 비리시리

(3) 중간평가

* 즐기기

2014 MAY



2. 비리시리

(3) 중간평가 (15~18일)

* 돌아보기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함께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소개하면서 시간이 후딱 흘러갔다. 다시 마음을 추스른 뒤 중간평가 이후 팀 나눔을 통해 평가팀에게 받은 조언들을 정리해보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했다. 계속해서 활동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 돌아간 뒤의 개인적인 지속성 또한 염두에 둘 수 있어야겠다. 중간평가를 기점으로 우리가 활동을 펼치면서 꼭 필요했지만 차마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들을 찾아내는 역할도 주어졌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게 될 12기와 13기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활동의 확실한 인수인계와 지속성과 대한 책임감도 더욱 느끼게 된다. 우리가 그 동안 잘 해오고 있었다는 다행스런 마음과 동시에 또다시 몰려오는 생각들, 그리고 들려온 안타까운 비보 타인지 사실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게 된다. 다시금 우리를 재정비하고 남은 활동들을 열심히 마무리해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글라띠'가 되어야겠다.

故문홍빈 총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Special Edition>

비리시리 그린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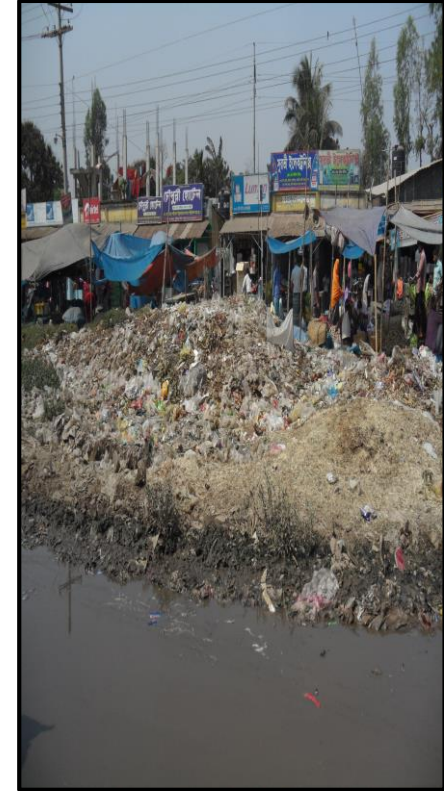
Birisiri Green Project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이 쓰레기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는 방글라데시.
거리 곳곳에 더럽게 나뒹굴고 있는 각종
쓰레기 오물들과 코를 찌르는 악취.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3,4월 보고서 참조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기획서 참조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쓰레기통을 설치해보는건 어때?

Q1. 정말 현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까?

- 1 /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는 토양과 물을 오염 시키고 위생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 2 / 쓰레기통도 없는데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말라고 외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 3 /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생각 속에 중요한 문제로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 기수들의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어.

Q2. 우리가 떠난 후에 무용지물이 되면 어떡해?

- 1 / 우리가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시장 위원회측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 2 / 시장 위원회가 고용한 청소부가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비워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맡자. (클리닝 프로그램, 포스터 부착 등)
- 3 / 지속적인 클리닝 프로그램이 youth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쓰레기통 사용이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2014 MAY

4월 20일

- 1 / 비리시리 Y 총장님께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제안.
실효성과 현지 사람들의 입장 여쭙기.
- 2 / 시장위원회와 미팅.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마켓 청소부는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4월 24일

쓰레기통 찾기.
및 예산책정
(650TK x 6)

5월 4일

NCYB로부터
자금 조달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7일

Youth들과
쓰레기통 페인팅



5월 12일

쓰레기통
전달식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21일

시장위원회와 미팅

쓰레기통이 설치되고 그 유지와 관리에 대해 우리가 지속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처음 조달한 플라스틱 백이 왜 꾸준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 쓰레기통이 비워진 후 어디서 처리되고 있는지와 관련해 시장위원회와 미팅을 가졌다. 플라스틱 백은 냄새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통만 사용하기로 했다. 비워진 쓰레기들은 청소부들이 현재 다리 밑에 버린다고 해서, 만약 소각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장위원회 건물 뒤에 매립할 것을 약속 받았다.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23일

첫 클리닝 클럽



쓰레기통 사용 홍보를 위한 Youth들과의 클리닝 클럽이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19일 youth들과의 회의를 통해 정해졌고, 매주 금요일 9시에 마켓의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담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첫 클럽 활동 결과 아침 9시가 너무 더워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로 변경하였다.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활동 시에 착용할 어깨띠와 배너를 제작 중에 있다.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28일

쓰레기통 홍보 포스터 부착

쓰레기통 사용을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위치한 모든 가게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장 위원회측이 1차적으로 가게의 협조를 얻었고, 이후 우리가 시장의 가게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 가게 한 칸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인식을 얻어 실천할 수 있도록 가게주인들 먼저 행동할 것을 부탁했다.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생각해볼 거리

01 / 클리닝 클럽의 지속성

기존의 Youth 클럽에서 지속성을 찾기 힘들다면, 다소 목적이 상이한 클리닝 클럽에서 지속성을 얻어 보는 건 어떨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리가 없어도 클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찾아보아야겠다.

02 / 쓰레기 처리 방법

쓰레기통이 특정 가게 앞에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쓰레기가 처리되는 방법이 소각이 아니라 매립이라면 매립지인 시장위원회 뒤쪽 땅은 늘 쓰레기더미로 남아있어야 하는 걸까. 기존 매립지였던 다리 밑에 있는 엄청난 쓰레기더미들은 어떤 방식으로 치워야 할까.

III. 방글라데시 고민이야기

2014 APRIL



BIRISIRI YMCA, BALGLADESH

RAONATTI 11th Batch



방글라데시 고민이야기

1. Youth

2. 다하파라 클리닉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1. Youth - ①

Youth들과 함께 하는 Youth Club 활동은 우리 팀이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시작한 활동이다. 네 번째 기수로 비리시리에 왔고, 지금까지 세 기수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라온아띠가 진행하는 Youth 프로그램이 현지 Youth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문화강좌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었다. 라온아띠가 주체가 되고 Youth들은 객체가 되는 Youth 프로그램은 라온아띠 기수가 교체되는 공백기간 동안 지속되지 못했고, 더군다나 Youth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Youth 프로그램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youth club을 시작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떠난 후에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사실 club이라고 시작했지만, 라온아띠와 함께하는 youth 프로그램이 네 번째인 youth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문화강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팀 내 나눔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youth club 목적이 지속성으로 그 중심추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youth들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그 포인트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다. 물론 관계를 두텁게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이들이 어떤 것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우리가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1. Youth - ②

특히 비리시리에서 열린 두 차례의 세미나에 Youth들과 함께 참여한 결과, 이곳에서는 '세미나'가 하나의 열띤 지적 토론의 장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350ppm 캠페인 환경의 날 오전 행사를 Biplop 사무총장님께 부탁하여 환경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형성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하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모든 진행하는 활동들을 항상 Youth들과 함께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페이스페인팅을 통한 모금활동, 쓰레기통 설치, 350ppm 공교육 파견 등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활동도 Youth들과 생각을 나누고 같이 활동을 펼치면서 이해와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적인 측면 외에 아직 Youth와 추억을 만드는 활동들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앞으로는 서로의 음식, 전통 게임 등을 편안하게 나누면서 즐거운 추억을 함께 쌓아가야겠다.

방글라딕 고민이야기

2. 다하파라 클리닉

현재 다하파라 클리닉에서 우리 팀은 지역 서베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 기수들도 그 목적과 대상, 기간은 달랐지만 역시나 서베이를 진행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연계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진행되는 서베이가 다하파라 전 지역을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수가 이전 서베이 결과들을 포괄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전기수 서베이들을 모아놓고 우리와 겹치는 집의 조사내용들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에 12기가 활동할 때는 좀 더 연계성 있게끔 전달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지금 다하파라 클리닉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기수에서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활동이 끝나버려서 일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6월 중순 쯤엔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범위를 잡아 놓고 12기에게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IV. 단원소감

2014 MAY



Ajoy
Shojol
Dipa
Shiuli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Ajoy

/ 동화(同化)

5월이 찾아왔고 또 지나갔다. 내 주위에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었다. 지독한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시작되었고 낮 밤 가리지 않고 하늘은 빗물을 쏟아내고 있다. 5월 동안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고민들이 많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우리가 돌아가고 난 이후 12기 팀들이 오기 전까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 단순히 Youth멤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자고 해서 그저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많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Birisiri가 내 마을이다 내 집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니 한국에서의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친구들과 하던 장난들이 많아지고, 몸 컨디션도 한국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계속)

2014 MAY



Ajoy

/ 동화(同化)

5월에 생긴 많은 변화 가운데 가장 Big news! 우리에게도 가족이, 각자의 집이, 내 동네가 생겼다. 저녁 늦게 연락이 없으면 칼 같이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는지, 밥은 어디서 먹는지, 일찍 귀가 하라는 등, 우리를 친자식처럼 친동생처럼 생각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인 김진경은 시간 속에서 잠시 사라지고 방글라데시인 Ajoy Sangma가 된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던가. 정말 방글라데시에서 맞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언젠가는 돌아가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행복함을 역사 속으로 넣어두고 싶지 않고 이 순간에 머무르고 싶다. 이 행복함이 날아가지 않게 꼭 붙들어 놓아야겠다.

2014 MAY



Shojol

/ We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서로 같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서로'의 존재는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족.**

#금은보화로 치장된 그 어떤 궁전보다 소박한 자기집이 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집 밖의 불편함,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된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이리라. 심과 여유 그리고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 **우리집.**

#해맑게 손 흔들며 내 이름을 묻는 천사 같은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도 이 세상 전부인 것마냥 깔깔거리며 웃는 순수한 유스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네 집 내 집을 왕래하는 이웃들. **우리동네.**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에 다시 온다면 그것은 단연 '우리'로 묶인 가족, 집, 동네 때문이지 않을까. 시간이 흘러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 속에 품은 우리가족, 우리집, 우리동네는 여전히 그리고 그대로.

#한국이든 방글라데시든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 이름은 Shojol로 바뀌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같다. 역시 황하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2014 MAY



Dipa

/ Reminding

이번 달은 비리시리에 와서 산지 중간이 되는 시점이 있었다.
지금 보면 중간시점의 전과 후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욕심이 많아져서인지 고민도 많아졌다.

비리시리에 대한 애정이 커질수록 홈스테이 가정의 딸로서, 현지 youth들의 친구로서, 다하 파라 애기들의 didi로서, 라온아띠 활동을 하는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지만 많이 어렵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많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헤매일 때가 많았다. 본의 아니게 괜한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곳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내가 먼저 다가갈 용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의 속도로 보았을 때 귀국까지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남은 2개월의 시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곳 사람들 한명 한명 눈을 맞추며 나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안부를 물어야겠다.



Shiuli

/ 돈노뱃!

이제 비리시리에서의 생활들이 진짜 내 것으로 정착된 느낌이 든다. 에세이를 쓰려고 일기장을 꺼내는데, 세 달의 흐름만큼 차곡차곡 쌓인 기록들에 괜스레 새삼스러웠다. “참 열심히 살아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달을 살아갈 생각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나를 감쌌다.

낮선 사람보고 엄마아빠라고 부르라니, 홈스테이를 유난히 어색해하던 나였는데 이젠 정말 내 집처럼 편해졌다. 보이지 않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이젠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다.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변을 돌아보니, 참 감사할 일들 투성이다. 이 곳에 와 있는 것도, 좋은 사람들과 한 팀인 것도,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날 그리워해주는 것도, 그리고 나의 자그마한 성장들도 모두 감사할 일이다. 나는 여러 사람의 희생과 사랑으로 건강히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제 그 사랑들에 보답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4 MAY

2014 MAY



+ Photo Time

RAONATTI 11th Batch

SHRUTI A. BALGLADESH



헤어살롱 실장님과~♡



우리 팀 큰오빠,,,



내가 미대다!



코코넛 네 개!





아이들의 꽃 선물 ^ ^



메헤디! 무늬대로 탃다고 한다





일할 때 더 맛있는 우리의 총장님!



망고를 갈 때 더 맛있는 우리 큰오빠!



다하파라 귀요미 닥터 디디!



“우후우~ 쇼모샤 오넥 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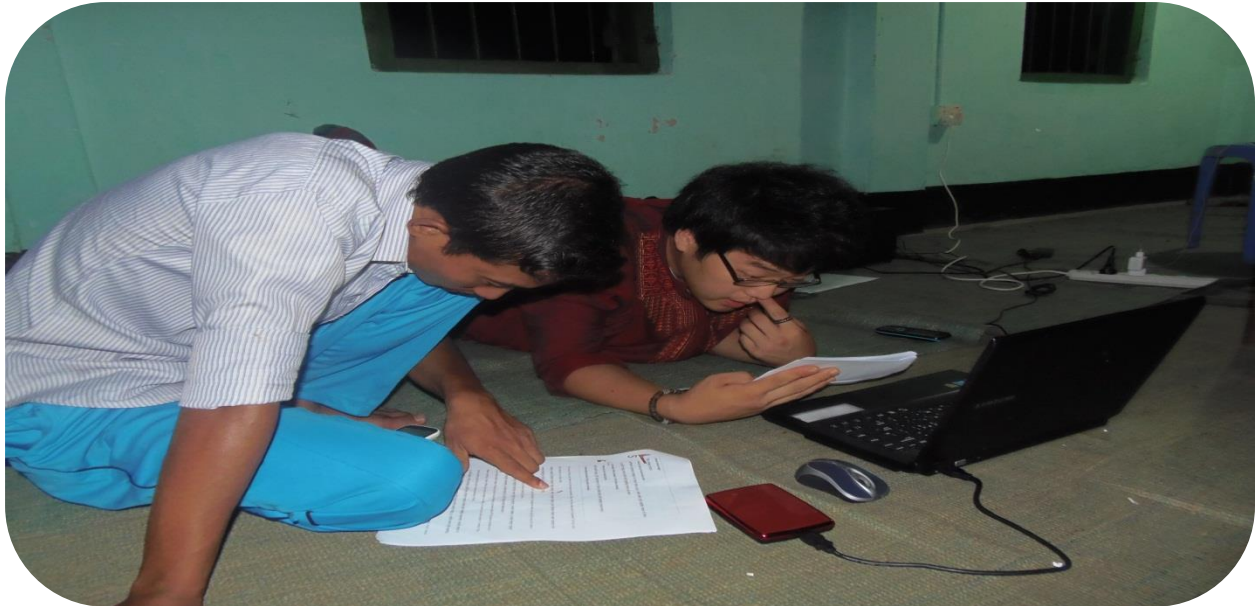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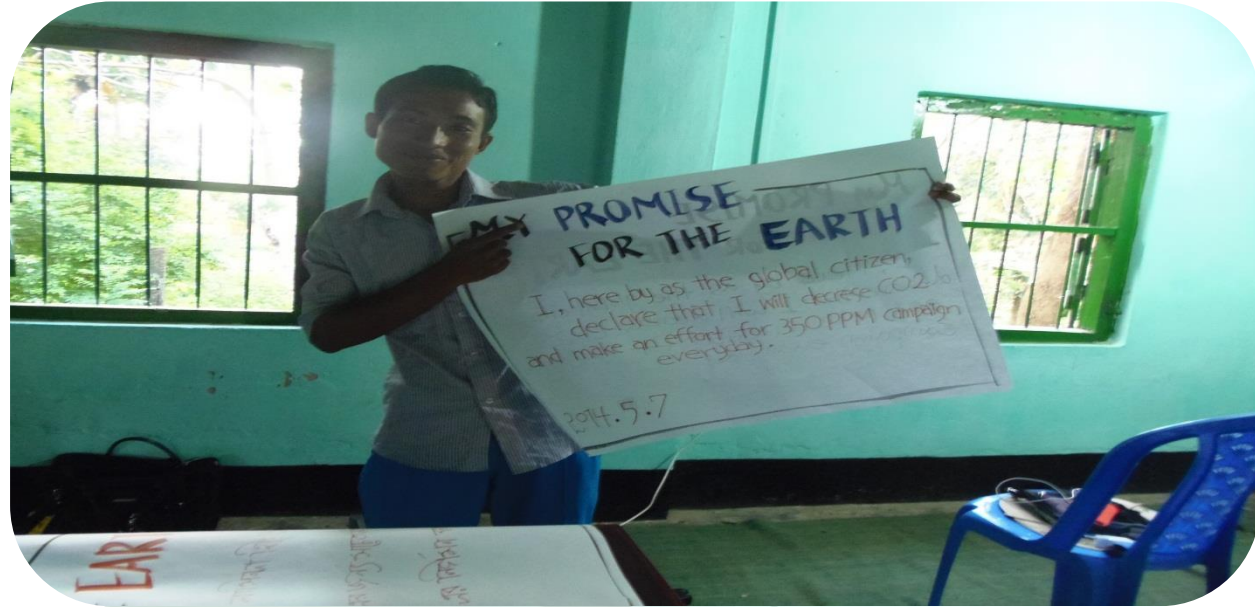
신지혜 (22, 양계장 운영)



<Cultural interaction day>



<공교육 파견 준비작업>



〈배타고 강건너 공교육 파견〉



〈배타고 강건너 공교육 파견〉



〈다함께 피크닉 준비〉



<즐거운 피크닉!!!>



먹을땐 사진 찍히는 줄도 모릅니다..



누가 제일 귀엽나~~~~~



우리 살 찢어용 >_<!

<즐거운 피크닉!!!>



프라임 낙타설..



시울리 원송이설..

<즐거운 피크닉!!!>



이후 전투가 벌어진다





머리가 폭신평신햐



안녕 나능 피터팬이얌!



클리닝 클럽 중 비 피하기



피터팬 6시 퇴근

2014 MAY



Ajoy
Shojol
Dipa
Shiuli

RAONATTI 11th Batch

BIRSIR, MCA, B. GLADESH

Abar Dekha Hobe !